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공방

野 “의장→총리 후보자로 검증 자체가 의회 중요성 추락”
“이낙연 정계복귀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 삼아 화나”
與 “대한민국 헌법에선 의원 겸직 허용...논란 부질없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파열음을 빚었다.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

위라고 생각한다”며 “썩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례적인 일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비취했을 때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하다”며 “국회의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과거 사법부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던 일들과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역할을 겸한 해외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 “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이 논란은 대단히 부질없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도 “의전서열이라는 것은 외교부의 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구성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불편할 수 있어서 (총리직 제안을) 주저했고 고사를 했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수락하게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인데, 미제출한 자료 건수가 344건”이라고 지적했고 김상훈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중 (자료 미제출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과거) 이완구 후보자는 40%, 정 후보자는 72.1%”라면서 “한국당이 자료 제출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총리 후보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보씨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그 분은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지만 (베트남에서의) 준공식 때문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청문회 종료 후) 따로 그 증인이 필요해서 부르겠다고 하면 의사가 있기에 여야 간에 의논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여야, 文대통령 신년사 반응 엇갈려 “도약 과제 제시” vs “달나라 인식”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상생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층 변화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에게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했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심지어 경찰까지 총동원된 부정선거 공작이 과연 공정한 선거였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게 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공정한 수사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며 “자화자찬은 있지만 반성은 없고,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부족한 신년사”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 치닫하고 있는데,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부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복(國民福)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새로운 보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꼭 막힌 대통령의 인식에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숨이 막히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달나라 떠나라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초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하였을 뿐 개혁 미진,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했다”면서도 “향후 이어지는 행보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며 “남북관계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팍팍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이태규 “安 복귀, 그릇 선택보다 내용 우선적 고민 과제”

“한국당, 이미지 경쟁 뒤져...바른미래, 孫 앉아있는데 고칠 수 있나”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안 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디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이유에 대해 “정치를 재개했을 경우 과연 유의미

한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해야 되겠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을 선택하느냐,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보다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느냐가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우선적인 고민 과제”라며 “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치와 이미지

경쟁에서 완벽하게 뒤져있다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앉아 있으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 그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자꾸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안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집권세

력이 좌파니, 우리는 보수다. 모이자’ 이런 진영대결을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결국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당 창당 관련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비호감도 역시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여준다면 안 전 대표가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에 부응 못했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시 준비하고 나선다면 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